

## ◆ 『명사 조선열전』 후반부 ◆

2015.9.19. 한외사연구회 이현미

### 임진왜란 발발

- 1592.5. 소서행장, 가등청정 부산진 침략, 임진강 도하/ 1592.7. 한양 점령, 임해군 포로
- 명에 원병 요청: '願내속(內屬)' 선조가 직접 요동에 가서 '내부(內附)'해서라도 청병
- 명의 참전 동기: '조선위국번리(朝鮮爲國藩籬)' 중국의 울타리 구실을 하는 번국, '10만대군'

### 명일 강화 및 봉공(奉貢) 논의

- 초기 열세 (일본 군사력 과소평가), 1592.12. 평양 전투 대승, 벽제관 전투 패전. 백중세
- 1593.7. 명 조정 철군론: 1만 6천명만 잔류, 군비 지출 과다, 조선의 군량 공급 주장
- 명군 내부 및 조정에서 강화파 vs. 반대파
- 1594.1. 선조 사은사 파견, 강화 반대 & 봉공 중지 요청
- 1594.9. 만력제 3개 강화조건 (1.왜적 철수 2.봉국하되 진공 불가 3.조선 불침 서약)
- 1594.12. 봉공 확정, 1596.9. 명의 책봉사+조선 통신사 도일, 관백 풍신수길 조선의 비례 '卑官微物' 이유 접견 거절
- 1595.2. 양방형, 석성, 심유경 책봉 표문 위조사건

### 강화 결렬과 정유재란

- 1597.5. 명 지휘부 교체, 1597.6. 왜병 부산 재침, 1597.8. 왜군 한양까지 육박
- 명 정부팔자비서(政府八字密畫): '陽戰陰和, 陽剿陰撫' 겉으로는 싸우면서 안으로는 화의하고자 하고, 평면으로는 토벌하되 이면으로는 초무한다 (병부상서 형개)
- 1598. 잔획군전 정유태, 경비 양호 탄핵: 도산성 전투 패배, 조선에 축성 → 조선 읍소에도 양호는 경질, 축성 변무는 성공

### 종전과 전후 처리

- 1598.7. 풍신수길의 죽음, 1598.11. 왜군 철수
- "중국과 조선이 이길 가망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는데, 관백이 죽고서야 화란이 비로소 종식되었다(中朝與屬國迄無勝算, 至關白死而禍始息)"
- 1599.윤4. 만력제의 칙유 "왕은 비록 舊物을 돌려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새로 만든 것과 다름없으니 (實同新造)" → 재조지은(再朝之恩)
- 1599.5. 총독 형개 '東征善後事宜十事': 3만 4천명 잔류 & 향후 군비 재정 조선 부담 주장 vs. 명 조정의 반대 의견 (그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)
- 1599.10. 조선은 수군 8천명만 잔류 & 육군은 요양 주둔 주장: 재정 부담 경감 위해
- 1601.2. 명 병부 '經督條陳七事': 요새 정비, 성곽 해자 건설, 무기 장비 제조 등 조선의 자강책 & "우리 스스로를 견고히 하는 것은 조선 또한 견고히 하는 것(我自固, 亦所以固朝鮮也)"
- 조선 & 대마도, 왜와의 관계 회복: 조선의 위협인식, 명의 능력 한계, 조선의 자율에 맡김

## 광해군대의 문제들

### ● 책봉과 왕권

- 1595.9, 1596.5, 1605.9 등 선조 재위시 세자 책봉사 파견, 명의 지속적 거절
  - 1609. 선조 졸. 광해군의 왕위계승 승인 요청 거절. 신민의 공의를 조사 후 책봉
  - 1614.4. 생모 김씨 추봉 요청 승인 (대명회전), 1617.9. 생모 김씨 관복 요청 수락
- 서차자로서 태생적 약점/ 명의 책봉 통한 정통성 강화

### ● 명-후금-조선 삼각관계

- 1620.1. 광해군의 상주문 “朝鮮·北關·宰賽 가 한결같이 南朝에 援兵을 보냈는데 지금 北關과 宰賽를 모두 멸망시켰으니 朝鮮만 홀로 남겨 둘 수 없다”
- 1619년 대패한 명의 심하 전투에 조선이 파병한 것을 가리킴
- 1620. 조선감호론과 조선의 변무 성공: 遼東鎮에서 朝鮮과 大清이 講和하였다는 추측 보고/ 조정의 의논이 ‘琿이 걸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적에게 순종하니 官人을 파견하여 宣諭하는 것이 옳다’라고도 하고, ‘장수에게 명하여 [朝鮮을] 監護해야 한다’라고도...
- 1621.8. 요동 육로사행 대신 등주·등래 해로 사행

## 인조대의 문제들

### ● 인조반정

- 1623.4. 광해군 폐위, 1623.8. 대리청정 소경왕후 인조 책봉 상소 (총 12번)
- 조선 or 모문룡의 광해군의 패덕·반신(叛臣) 주장 신뢰 없음, 그러나 후금과의 전쟁 때문에
- 1624.4. 인조 책봉

### ● 모문룡의 피도(가도) 점유, 군량 조달/ 요동난민 유입으로 인한 피해

- 1626.10. 인조 상소 中 “잠시 어둡고 어지러운 대를 만나 몰래 敵國과 내통하였더니, 皇天이 진노하여 天命을 바꾸어 버렸습니다.”: 반정의 명분
- 광종황제의 대답 “毛 진영도 중국 조정에 있어서는 [敵을] 견제해 주는 군대이며, 王國에 있어서는 唇亡齒寒의 형세에 놓인 군대”

### ● 후금 침략

- 1627.3. 정묘호란
- 1627.9. 인조 호란 상주했지만, 명은 희종-장렬제 교체 와중
- 1629.7. 조선 1년 2공을 1년 1공으로
- 1633.6. 인조, 명 총병에게 서신, 청에 투항한 모문룡 병사들(2만)의 식량 요구 거절 알림
- 1637.1. 병자호란: “盟約를 어기고 明나라를 도운 죄”
- 통지를 받은 명은 3월에 수군 출동, 산동순무, 인조의 항복 소식+피도(평안도 철산 앞바다: 조선과 중국의 서북단 접경 해역) 수비 진력 진언
- “황제는 계조(繼祖)가 서로 협력하여 구원하지 못한 것을 준엄하게 꾸짖었다.”

## 생각할 문제

- 명사 조선전 말미의 “朝鮮은 명나라에 대하여 비록 屬國이라 일컬었으나, 경계 안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(朝鮮在明雖稱屬國, 而無異域內)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?
- 명의 임진왜란 참전동기가 중국 본토 안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(번리, 번병, 선부른 강화, 팔자비서) 조명관계는 무정부상태의 동맹관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공동안보, 협력안보 실현.
  - 예를 들어, 1601.2. 명 병부에서 낸 ‘經督條陳七事’: 조선의 자강책 & “우리 스스로를 견고히 하는 것은 조선 또한 견고히 하는 것(我自固, 亦所以固朝鮮也)”
  - 그 가능 요인은? 공통의 위협/ 관념/ 후원 or 헤게모니/ 공유된 규범으로서의 유교?
- 왜란 종전 후 일본과의 국교 회복 과정을 보면, ‘인신무외교’ 원칙이 기미교린으로 bypass
  - 일본의 위협, 조선의 통지, 명의 능력 한계, 조선의 자율에 맡김
  - 중화체제에서 명의 능력 커질수록 자율성은 떨어지지만 안보는 보장되고, 명의 능력 작을수록 자율성은 커지지만 안보는 불안
  - 명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할 때 (세력변동, 구조변동기) 조선 안보 취약
  - 궁극적 해결 위해 자력구제를 시도한다면, 명은 이를 어디까지 용인하겠는가?